



미 증시, 오미크론 불안 진정 속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 일(목)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불안으로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봉쇄정책 미시행 발표, 하원의 임시지출예산안 통과 소식 등 일부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반등세로 마감(다우 +1.8%, S&P500 +1.4%, 나스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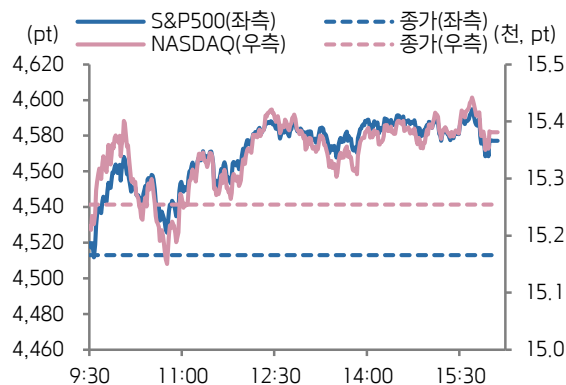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구소에서는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베타 변이보다 3 배 높은 재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도 미네소타주에서 추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오미크론 방역지침에 의하면,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검사를 확대가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면적인 봉쇄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미 하원에서는 12 월 3 일로 시한이 설정된 2022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를 내년 2 월 18 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지출법안에 합의. 이로 인해 3 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연방 정부 섯다운을 방지하게 됐음. 상원 표결은 추후 곧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 했으므로 내년 1 분기에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다만 금리인상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오미크론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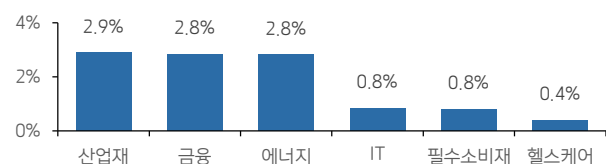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2 만건으로 전주(19.4 만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예상치(24.0 만건)는 하회. 4 주 이동평균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3.8 만건으로 전주(25.1 만건)에 비해 감소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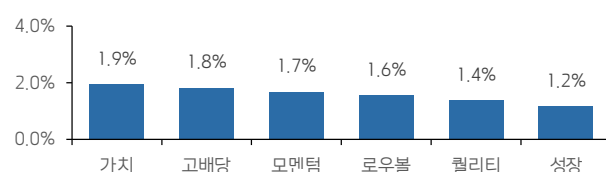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77.10	+1.42%	USD/KRW	1,175.62	-0.29%
NASDAQ	15,381.32	+0.83%	달러 지수	96.13	+0.11%
다우	34,639.79	+1.82%	EUR/USD	1.13	+0%
VIX	27.95	-10.19%	USD/CNH	6.37	+0.01%
러셀 2000	2,206.33	+2.74%	USD/JPY	113.05	-0.05%
필라. 반도체	3,810.82	+0%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949.23	+2.94%	국고채 3년	1.850	+3.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207	+2.5bp
Eurostoxx50	4,108.02	-1.7%	미국 국채 2년	0.613	+6.1bp
MSCI 전세계 지수	724.65	-0.26%	미국 국채 10년	1.444	+4.1bp
MSCI DM 지수	3,087.98	-0.4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6.81	+1.19%	WTI	67.47	+2.9%
MSCI 한국 ETF	79.06	+2.24%	금	1769.4	-0.8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7.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거래일 급락했던 2차전지, 메타버스, NFT 관련 주들의 기술적 반등 여부
2. 오미크론 불안 진정에 따른 국내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3. 외국인들의 반도체 등 대형주 순매수세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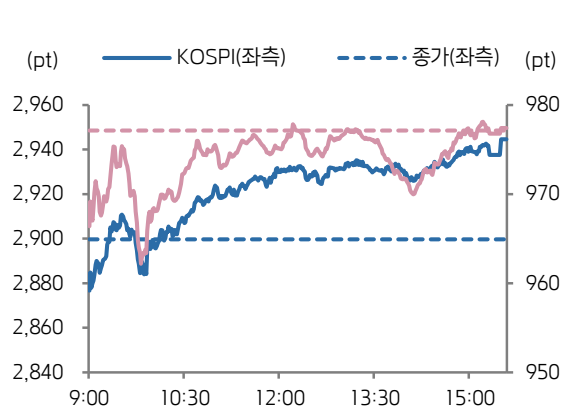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감염 위험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건 차원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그러나 2 일 바이든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지침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전면적인 봉쇄조치 시행은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치명률 등 세부 데이터가 여전히 부재한 것은 사실이나, 봉쇄정책 등 정부의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낮은 이상 오미크론이 유발하는 악재로서의 증시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편,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인 색채가 짙은 모습. 최근 상하원 증언에서 12 월 FOMC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한 파월의장에 이어,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들도 조기 테이퍼링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생각해볼 점은 현재 연준의 정책 대응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오미크론발 경기 둔화 혹은 경기 회복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이드언스를 활용해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테이퍼링 가속화라는 매파적인 가이드언스를 통해 시장의 컨센서스를 형성시킨 후, 실제 12 월 FOMC 에서는 기존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한다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를 완화적인 정책 신호로 받아들일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테이퍼링 가속화, '22 년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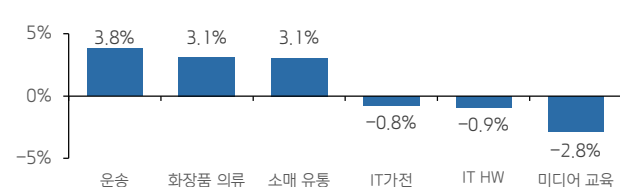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물론 선거래일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 급락했던 2 차전지,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간에는 차익실현 물량, 저가매수세 물량 등으로 국내 증시 전반적인 수급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여지는 있음.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원화 강세 환경, 국내 증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등을 고려 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수급 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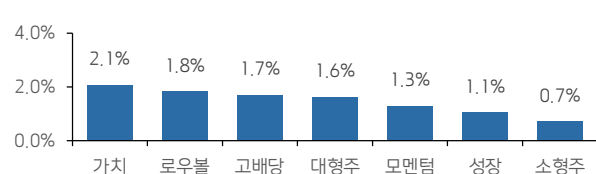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